

業의 본질은 버릇... “자신의 삶 반추하세요”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 전생타령에 대한 소고

짜가도사와 삼쇄도사의 대결, 계속됩니다. 짜가도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에게 전생의 업보를 이야기하며 겁을 주고 있는 대목에서 삼쇄 선생이 분장한 삼쇄도사가 등장했지요? 자, 그럼 어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짜가도사 :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 거룩한 도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삼쇄도사 : 거 동업자끼리 그러지 마시다. 그리고 뭐 거룩한 권위 운운하는데, 무슨 도사 증명서 같은 거 있어? 아니면 도력 측정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몰라...

〈짜가도사, 얼굴이 붉으라푸르라 하지만 대응할 말이 없다〉

삼쇄도사 : 계속 전생의 업보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귀에 결면 귀결이, 코에 결면 코결이 같은 소리 싫어하지만, 이집에 나도 정말 도사 흉내 한번 내봅시다. 내가 본 전생과 당신이 본 전생이 다르다면 어쩔 것인데? 내가 본 전생은 이래요. 당신이 그래도 믿는 본 모양인데, 전생에 소와 소키우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거 같아. 그런데 부인이 소 키우면서 소를 학대한 주인이 아니고, 맞던 소였던 말이지, 남편은 소 학대하던 주인이었고.

짜가도사 :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이 사이비라는 것이 드러나는군. 전생에 학대한 과보를 받아서 지금 당한다는 내 설명이 맞지, 전생에 당하던 사람이 계속 당한다는 당신 설명은 엉터리가 틀림없잖아!

삼쇄도사 : 그러니까 당신이 뭘 잘 모른다는 거야. 업이라는 것은 버릇이거든요. 전생에 때리던 버릇이 남아서 금세에도 계속 때리는 거야. 부인은 맞던 전생의 버릇대로 계속 맞는 것이고, 아,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되지는 않겠지, 맞던 쪽의 분노가 일정 수준이 되면 거꾸로 복수극이 벌어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복수극이 이루어질 만큼 업이 숙성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아직은 맞는 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짜가도사 : 뭐 그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설명이...

삼쇄도사 :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뭘 잘 모른다는 거지, 당신 말대로 “다 전생의 업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하다 보면 계속 얼마를 더 맞는 업이 계속될지 몰라. 그렇다고 꼭꼭 분노를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분노가 업이 되어 거꾸로 부인이 남편을 때리는 업으로 전환될 거야. 그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 계속 얹지락뒤치락 때리고 맞는 업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테니까.

짜가도사 : 그럼 당신 처방은 뭐야? 나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맞으며 살라는 것도 아니라면... 무슨 수가 있다는 거지?

삼쇄도사 : 올바른 수단으로 업의 사슬을 끊어야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지! 정 안되면 법에 호소해서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쳐야지. 그 나쁜 버릇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도 나쁜 업이 되거든! 물론 분노로 대응하여 업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당신처럼 믿을 수 없는 도사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안될 말이고!

짜가도사 : ...

삼쇄도사 : 그리고 말야, 동업자로서 충고하는데, 그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전생의 업타령은 이제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거야. 그거 이제 식상하거든. 내가 당신 흉내내서 전생의 업을 다르게 봤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실은 정말 흉내내서 말해본거야. 그렇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니 당신이 본 게 맞는지 내가 본 게 맞는지 누가 관찰할 수 있어? 그런 소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자부인 같은 분 등치지 말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정직한 영업을 하는 게 좋아요. 얼른 도사 영업방첩을 바꿔요!

〈짜가도사 우물쭈물, 슬금슬금 퇴장한다〉

자, 삼쇄도사의 암습! 얼마나 통쾌할까? 삼쇄 선생의 도사기가 제대로 발동되었지요? 어?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또 삼쇄 선생의 제 얼굴에 개금불사 하는 버릇이 발동되었다구요? 삼쇄 선생의 도사기는 그 개금불사 실력에서 제일 잘 발휘되는 거 같지요? 어째 짜가도사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거 같지요? 애국, 알았습니다. 얼른 본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설프게 꾸민 이야기지만, 삼쇄 선생이 말하고 자 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상한 전생타령은 그만두자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앞의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증명될 수도 없는 전생타령은 정말 흑세무민입니다. 그런 전생타령 더 이상 속아서도 안되겠구요. 물론 전생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건 믿어야지요. 그렇게 믿고,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걸 꼭 이리이러한 전생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확인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쉽게 그런 일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간판처럼 내거는 분들은 백이면 백, 거의 모두 사이비라는 것이지요. 삼쇄 선생의 말 믿으시고 그런 사이비에 당하는 일 없으시길!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버릇이라는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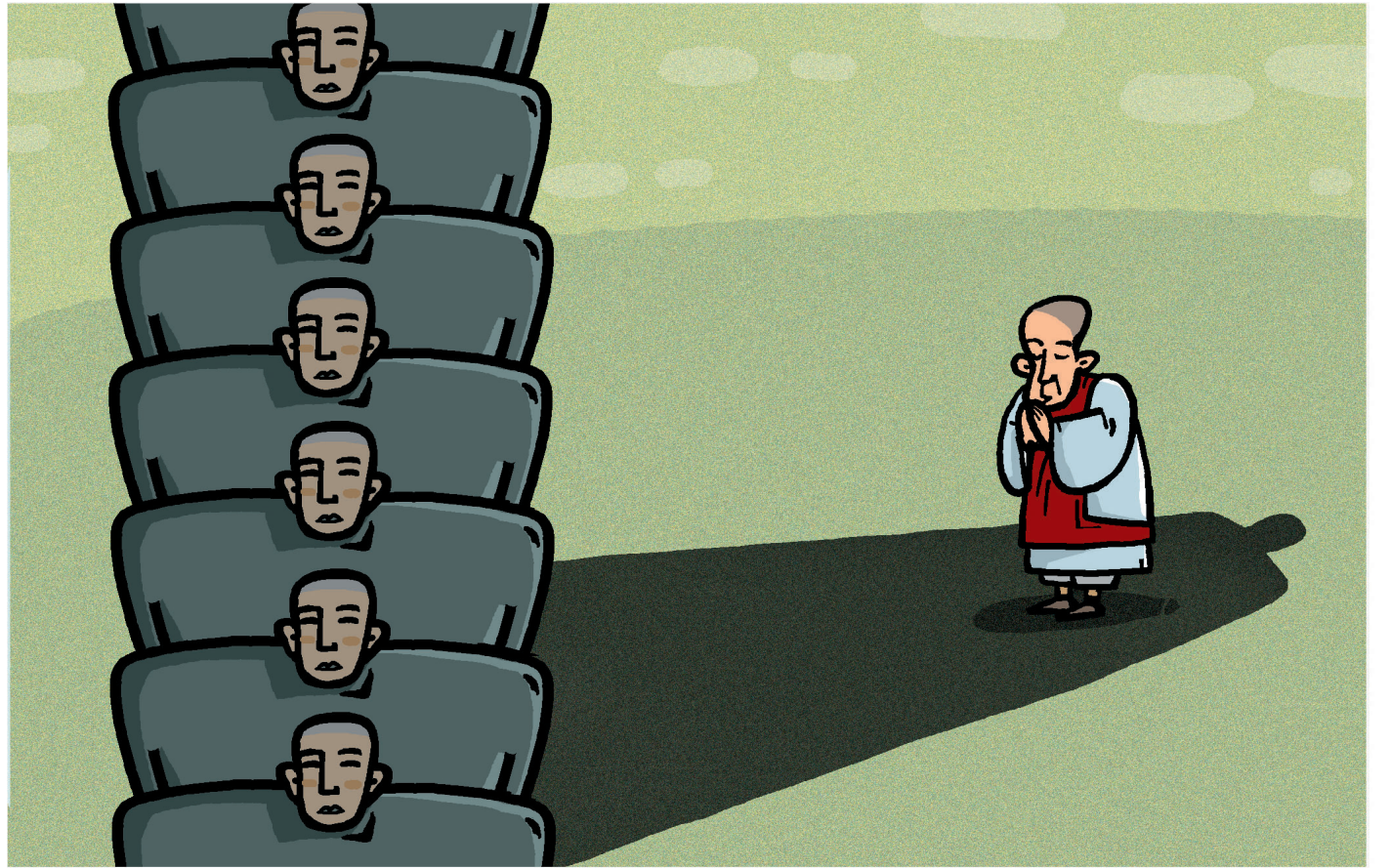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업은 행위의 방향성을 의미 지속적인 행위가 결과 낳아 선업에 대한 자아성찰도 필요

니다. 우리는 업을 너무 업보(業報)라는 측면에 치우쳐 해석하고 있어요. 업에는 당연히 과보(果報)라는 것이 따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해를 당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업의 중요한 측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지으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계속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짓게 되는 습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업을 지으면 계속 때리는 습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다가 맞는 사람들의 분노에 당하여 내가 맞는 과보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은 업의 과보이고, 그렇게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말을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좋은 과보를 받는 식이 생각이 나오게 마련이지요.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나쁜 것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그 과보로 남이 나에게 베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베풀어 놓고 많은 과보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종교에서 특히 더 그런 거 같아요. 보시를 하면서도 몇 배의 좋은 과보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작은 선행으로 천당에 좌석을 예약하려는 군상들! 그저 정상적인 행태라 볼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업을 지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업을 짓게 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베풀면 앞으로도 계속 베풀는 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베풀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약한 업을 지으면 앞으로도 계속 약한 업을 짓는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베풀는 업을 지어 앞으로도 계속 베풀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풀어서 앞으로는 받는 결과를 바라다면... 그것도 지금 베풀 것보다 몇 배로 뺏겨서 받는 결과를 바라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업을 짓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어라? 나칠게면, 갑자기 왜 그리 싱글빙글... 아주 행복한 표정이시네요. 삼쇄 선생의 말이 그렇게도 감명을 주었나보지요? 정말 드문 일이군요. 나칠게님이 삼쇄 선생의 말에 그토록 감명을 받다니... 그런데 단순한 감명은 아닌 듯하네요. 입가에 침까지 흐르려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군요.

서유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황포요괴의 정체가 무엇으로 드러났지요? 하늘의 선관인 규성(奎星)이라 했지요? 그럼 규성은 무엇이었나구요? 하늘의 별자리인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독자 여러분의 상식을 늘려 드려야겠군요.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이 28수는 동서남북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각 7개의 별자리들이 배당됩니다. 이들을 동방정룡, 북방현무, 서방백호, 남방주작 분야의

별들로 불려집니다. 이것이 천문학과 점성술에서 사용되었습디다. 서유기에 등장하여 백화수 공주를 울린 못된 선관은 바로 서방의 별자리 가운데 하나를 관장하는 선관입니다. 이 선관이 하늘 세상에서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한바탕 놀음을 벌인 것이라네요. 백화수 공주는 원래 선녀이면서 속세에의 끝없는 고통을 면하게로 내려간 것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연담이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겠네요. 규성은 “이제 인연이 다했으니...” 하면서 툭툭 털고 천상으로 돌아가, 적당히 별 받고 끝났지요. 반성만 잘 하면 다시 선관으로 복귀할 것이구요. 그런데 하계에 남은 백화수 공주는요? 영문 모르고 요괴에게 납치되어 고통스런 삶을 살다가, 억지 인연일망정 인연을 맺은 남편 회 달아나고, 그 와중에 자기 몸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애꿎게 희생되고... 그런 아픈 사연을 그냥 “하늘 세상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 것이거나...” 하면서 잊으려구요? 이걸 좀 아니지 않아요? 백화수 공주는 하늘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혼자만 불쌍하게 된 백화수 공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남성중심 사회의 산물인 서유기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구요. 현재의 문제를 적당한 인연담으로 호도하려는 잘못된 업보설이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런 대목은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기 보다는, 그 시대적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삼쇄 선생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크, 또 제 얼굴에 개금불사하는 일이 벌어지겠군요. 다음 시간에 봐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 나무, 소원종, 소원의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 목 : 구룡의 기원
- 크 기 : 49.586 m² (15평)
- 작품소장사찰 :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